

돈줄 말라가는 중견·중소기업 줄도산 공포

은행 대출 대기업 쏠림... 올해 회사채 만기 몰려

중견·중소기업들의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급감하고 있어 한계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 이들 기업은 경기불황으로 회사채 발행과 증자는 물론 은행의 대출 등이 쉽지 않다. 건설·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에 속한 대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자산규모 비교가 가능한 612곳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액은 52조218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39% 감소했다.

현금성자산은 만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자동 전환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이 다. 현금성자산 감소는 유동성 사정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현금성자산이 줄어드는 기업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속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많다.

현금성자산 감소율이 80% 이상인 상장사 42곳 중 대기업으로 분류 가능한 곳은 GS(-94.83%)와 신세계건설(-92.12%), LG에너지(-89.07%) 등 3곳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는 뜻이다. 건설과 해운,

조선 등 영업 환경이 악화한 업종의 현금 사정도 안좋다. 상장 해운사 6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2조8200억원에 비해 1조원 넘게 줄었다. 감소율은 36.0%에 달했다.

36개 건설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조5000원에서 5조원으로 23.1% 급감했다. 6개 조선사의 현금자산은 6.3% 줄어 전체 상장사 감소율(3.39%)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현대중공업(3.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자리수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STX조선해양의 현금자산은 43.2% 급감했다.

상장사들의 현금 사정이 악화해 외부 조달이 불가피하지만, 운영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현금조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의 기업 대출이 대기업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25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62조9000억원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기등급인 '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액은 1188억원으로 전년의 38% 수준에 그쳤다. 투자격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BBB-' 등급의 발행액 역시 2450억원에

서 1550억원으로 급감했다.

자극금에 처한 중견·중소기업들은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 올해 중견·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자금 압박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부 진정되자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다. 이때 발행한 3년물 회사채 만기가 올해 집중된다. 올해 전체 회사채 만기 도래액 30조7000억원 중에서 비우량 회사채인 'BBB+' 등급 이하의 만기액은 4조9000억원으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량 회사채가 아니면 만기 상환 용도의 차관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자동차·건설·은행주 '관심'

철강·화학·정유 비중 확대

코스피가 한 단계 뛰어올랐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물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정체국면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수인 2000선에 근접하면서 다시 실리적인 저항과 경제 매물대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외 경제지표의 개선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유럽사태로 인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가 이어 기업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지난 EU정상회의에서 25개국 신 재정협약에 합의(영국, 체코 제외)하고, 7월 출범 예정인 ESM협약을 승인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재정 위기의 국제발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2~4월 예정된 대규모 국제 만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와 민간채권단 간의 국제스왑 협상(PSI)까지 조만간 타결된다면 그동안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었던 유럽사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와 정상회담 이후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실제 중국의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공조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럽사태의 해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난 주말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읍센 만기일을 전후로 한 프로그램 매매 등 수급적인 변수, 코스피 2000선의 저항 우려 등이 1차적으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순환매 장세 또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적극적인 추격 매수나 공격적 비중 축소보다는 현재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업종 간의 배분 조정을 통해 순환매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둔다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중소형 우량주와 가격 매력도가 재차 부각되는 자동차·건설·은행·정유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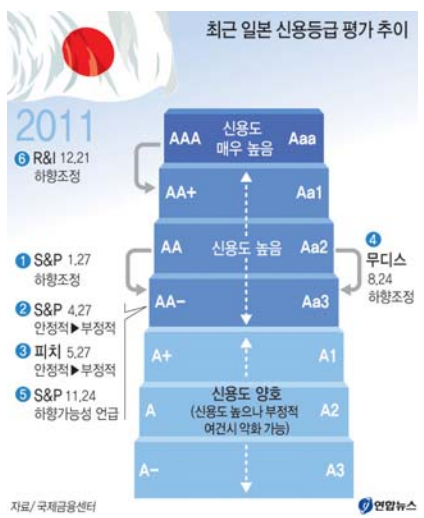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결국 주식 보유비중을 고민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교체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철강·화학·비철금속·정유 등 소재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日 국가부채 220%... '빚더미' 신용 강등되면 세계경제 '찬물'



회 = 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작년 일본 정부채무의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11.7%에 달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8.9%로 추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국가 부채비율 219.1%, 재정수지 비율 8.9%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을 작년 233.4%, 올해 238.4%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에서 재정난을 겪는 피그스(PIIGS)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 日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세계경제 악영향 우려 =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의 재정 악화는 세계경제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전성시' 한우 직거래장터

지난 3일 광주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한우고기 직거래장터 행사에 시민들이 고기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부위에 따라 시중가격보다 최고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곤두박질' 연금상품 수익률

대부분 1~3%속 0%대도... 수수료는 '바가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모든 연금상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내자 가입자들의 배신감도 커졌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은행, 보험사들은 비싼 수수료를 떼가기에 여념이 없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과 함께 개인 연금상품의 양대 축을 이루는 은행 연금저축(연금신탁)의 지난해 수익률은 정기에예금을 훨씬 밑돌았다.

채권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연금신탁

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3.03%에 불과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4.09%)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자산의 10% 이내를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형 연금신탁은 이보다 더 낮은 1.57%를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15개 상품 중 6개 상품이 0.5~0.8%대에 머물렀다.

채권형 연금신탁 21개와 안정형 15개 등 총 36개 상품이 모두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연합뉴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웃돌아 그리스 등 유럽 재정불안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재정건전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경제에 간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게다가 일본 자금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준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도 우려된다.

◇ 日 국가 부채비율 220%... 그리스 상

이쁜아침 2012년 대박 히트 사업 체인점 대모집

10호점까지 어마어마한 특전을 드립니다.

철판콩나물불고기

철판 생오리 불고기 | 철판 닭다리 불고기
철판 돼지 불고기 (100% 국내산)

날씨도 경기도 모두 풍뎉 얼어붙은 이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따뜻한 먹거리!!

이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시장 불 필요없이 재료 공급에서 양념까지 본사에서 당일 배송합니다
- 인건비 초 절감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고 일반인이나 남자도 쉽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저희 이쁜아침이 제안하는 초저가 창업 비용으로 창업 성공의 열쇠로 문을 여십시오.

메뉴

철판 콩나물불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150g) 5,000원

철판 콩나물 오리불고기 (국내산 생오리 150g) 6,500원

철판 콩나물 닭다리불고기 (국내산 생닭 150g) 6,000원

국내산 돼지고기 150g에 아삭한 콩나물과 야채를 듬뿍 넣어 철판에 볶아 먹어도 단돈 5,000원

초저가 창업!!

특전 1: 가맹비, 로열티 일체 없습니다.

특전 2: 기존시설 최대활용, 강제적인 인테리어 비용 없음.

특전 3: 신규 시설시 최저가 시공보장.

특전 4: 신규 창업시 창업비용 대출알선

때를 놓치고 후회 후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리를 선점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류

100% 국내산 생삼겹살 (1인분) 180g 6,800원

소갈비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차돌박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탕류

소갈비 감자탕 소갈비 해장국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생오리 감자탕 소머리 곰탕

이쁜아침 체인사업본부 062-265-8900

• 본부장 직통 010-9885-2025

• 야간 및 공휴일 전화 친절상담 011-803-2612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뚝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으로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후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할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용량(사용전력량)에해당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